

제2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2회 理事會가 吳雲東회장 주재로 지난 2월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변경」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된 주요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회 理事會)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변경
- '91 전국건축사대회는 연기하되 가급적 창립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기로 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재조정 승인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상의 공사비 단가에 대해서는 40%로 재조정하여 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와 관련하여 연금회비 징수율은 현행 1%에서 0.75%로, 실적회비 전국

징수율은 현행 0.8%에서 0.6%로 조정하기로 함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연구 승인
- 소요예산은 3월 임시총회시 추경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안) 승인
- 감리보수 기준을 기술용역육성법상의 비율과 동일수준으로 하여 형평의 원칙에 준하고자 하는 등의 원안대로 승인
- 건축법령연구소 자문위원 위촉
- 현 동국대 공과대학원장인李文輔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위원회 간사 보선
- 간사 보선 및 위원교체 여부를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제2회 支部會長會議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2회 支部會長會議가 지난 2월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상의 건축공사비 단

가 조정 시행」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내용은 제2회 이사회에 반영하였다.



任員協議會 개최

本協會는 지난 20일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등 협회 주요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任員協議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임원 협의회)

-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기로 협의

(地自制 의원선거 일정의 확정에 따라 3월 28일로 연기기로 확정-제3회 이사회 결의)

- '91 한국건축전 심사위원회 구성
- 회장과 건축1위원장, 설계경기 운영분과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구성하기로 협의

'91韓國建築展 作品審査



本協會에서 주최하던 건축사작품순회전과 신인·학생 설계작품공모전을 통합, 발전시킨 '91韓國建築展 작품접수가 지난 28일 마감되었다.

會員부분과 新人, 學生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된 이번 展示會에는 총 239개 작품(건축사부문 58작품, 신인부문 28작품, 학생부문 154작품)이 응모되어 2월 27일부터 작품심사를 실시하였다.

吳雲東회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사부문과 신인·학생부문을 구·분하여 사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월27~28일(신인·학생부문) 3월 4~5

일(건축사부문) 각각 부문별 심사를 실시, 姜錫元 회원作「성지원」등 건축사 부문 우수작과 준우수작, 신인·학생부문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심사경위와 수상작 발표는 p.18~의 記事 참조)



주거용 건물 소음에 관한 심포지움



本協會에서는 지난 20일 대한 건축학회와 한국음향학회와 공동으로 「주거용건물이 소음실태 및 저감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산·학협동으로 상호 연구의 활성화의 실무적용을 위한 정보교환의 발전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회원과 회원 사무소에 소속한 직원, 교수와 학생, 건설기술인과 일반인등 400여명이 참석, 본 협회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표주제와 강시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 소음과 주거환경-이광태(경남대)

- 제2주제 : 공기전파음 및 구조체의 차음실태-이상우(경기대)
- 제3주제 : 공기전파음의 저감대책-신영무(전북산업대)
- 제4주제 : 고체 전파음 및 구조체의 차음실태-김선우(전남대)
- 제5주제 : 고체 전파음의 저감대책-김홍식(대한주택공사)
- 제6주제 : 국내의 건축재료의 음향성능 특성 및 활용방안-김용국(환경음향연구소)
- 제7주제 : 국내의 주거환경 소음 관련기준 및 법규-박윤수(국립건설시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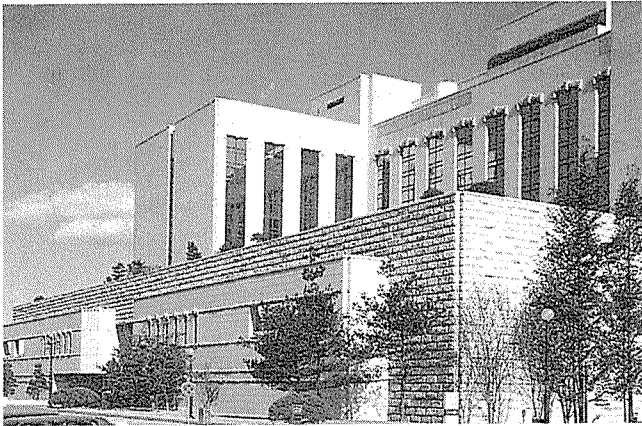
資料/判例

建築士事務所 登録이 취소된 경우와 그 業務停止命令의 취소

行政處分の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前歴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法定의 加重要件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法定加重要件에 따라 새로운 制裁的인 行政處分이 가해지고 있다면 先行政處分の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를 建築士事務所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建築士法 제 28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은 制裁的인 行政處分の 法廷 加重要件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原告가 辯論再開申請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原告의 建築士事務所登録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 이 사건 建築士事業停止命令에서 정한 停止期間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原告에게는 建築士事務所登録取消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原審으로서 이 사건 建築士業務停止命令 取消訴訟에 있어서 訴의 利益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辯論의 再開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審理를 다행하여야 한다.(90. 10. 23 제 2부 판결 90누 3119 공 886호 2440)

제9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제9회 서울시 건축상 금상 수상작

서울시에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매년 서울시내 우수건축물의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수여하는 서울시 건축상의 '90년도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89~90년도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9회 서울시 건축상 금상은 희림종합건축의 이영희, 이석문화원이 설계한 「국회의원 회관」이 차지하였는데 심

사위원으로는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축3단체장과 김문환(서울대), 박돈서(아주대), 박영기(연세대), 여홍구(한양대), 홍대형(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지난 28일부터 시청역 지하전시장에서 일반에 공개된 이번 서울시건축상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9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구분	건물명	설계자	건축주
금상 (1)	국회의원회관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이석문	국회사무처
	은상 (2)	스위스그랜드호텔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황규열
동상 (3)	국제방송센터	(주)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고김중업	한국방송공사
	이화여대 박물관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공항터미널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황일인	한국공항터미널(주)
장려상 (2)	올림픽유스호스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기반/김석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성림빌딩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임장렬	임장렬
	목동실내빙상경기장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서학조	서울특별시

'93대전엑스포아파트설계현상공모 당선작발표

지난 해 12월17일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주최한 '93대전 엑스포 아파트 설계 현상공모에서 아키프렌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우성)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4일까지 12개 사무소에서 접수된 12개의 설계안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 우수작으로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대표 박홍길)의 작품이, 장려상으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의 작품이 수상하였다.

심사 위원인 이광로 서울대 교수는 심사평에서 입상작들의 특징으로 아파트 배치의 다양성 추구와 기념성, 보행복지체계 확보,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단지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교통과 보행동선등의 유기적으로 계획된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2월11일 가진 시상식에서 당선자 김우성회원에게는 엑스포 아파트 설계권이 주어졌다.

분당신도시 쇼핑·레저단지 현상공모 발표

지난 해 11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상공모했던 분당신도시 쇼핑·레저단지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당초 50개 작품이 응모하여 14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우수작

- (주)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건원국제건축사

가작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기철

입선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2편의 우수작에서 장점을 취합하여 도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지 토지를 도시설계 내용으로 건축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매각할 예정이다.

안양시신청사현상설계 당선작발표

지난해말 안양시에서 작품을 공모한 안양시 신청사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안양시 평촌지구내에 건립될 신청사의 당선작은 부림종합

건축(김호+전현망)으로 건축면적 8천4백75.8㎡, 연적적 2만6천8백67.4㎡규모로 금년말 착공, 93년말에 완공될 예정이다.